2027 중2-1 천재(노)

2027 중2-1 국어 천재(노) | 2(2)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활용하기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해당 단원에서는 능동문과 피동문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변환하는 문제, 피동 표현이 실현되는 다양한 방법(접미사, '-아/어지다')을 구별하는 문제, 담화 상황에 따라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와 효과를 파악하는 문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특징을 비교하고 상호 변환할 때 달라지는 요소를 적용하는 문제, 이중 피동이나 잘못된 인용 조사 사용 등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찾아 올바르게 고치는 문제 등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피동 표현을 만드는 문법적 요소와 문장 성분의 변화 양상, 상황에 따른 피동 표현의 적절한 사용 효과,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변화하는 지점들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 <보기>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에밀리와 보미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다.

에밀리: (손등을 찰싹 때리며) 아!
보미: 왜 그래, 에밀리?
에밀리: 모기가 물렸어.
보미: (의아해하며) 응?

① 보미는 에밀리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
② 보미는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③ 에밀리는 피동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④ 에밀리와 보미는 학교 점심시간에 대화하고 있다.
⑤ 에밀리의 말은 '모기가 물었어'라고 고쳐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2. <보기>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탐험가가 숲속에서 고대 유적을 발견했다.
㉡ 고대 유적이 숲속에서 탐험가에게 발견되었다.

① ㉠과 ㉡은 서로 다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의 '탐험가'는 ㉡에서 부사어로 나타나고 있다.
③ ㉠의 '고대 유적'은 ㉡에서 목적어로 나타나고 있다.
④ ㉡은 접미사 '-아/어지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⑤ ㉠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3. 다음 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u>않은</u> 것은?

① 도망치던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② 실수로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③ 사람들은 이 식물을 약재로 사용한다.
④ 학교에 새로운 급식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⑤ 이번 대회 우승자가 심사 위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무단배포금지

4. <보기 2>는 <보기 1>의 (가)를 (나)로 수정한 의도를 정리한 것이다. ⓐ와 ⓑ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만 적절하게 묶은 것은?

<보기 1>

(가) 정부가 도난당했던 국보급 문화재를 100년 만에 회수했다.
(나) 도난당했던 국보급 문화재가 100년 만에 회수되었다.

<보기 2>

독자가, (ⓐ)이/가 아니라 (ⓑ)을/를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	ⓑ
①	행위의 주체	행위의 대상
②	행위의 대상	행위의 주체
③	국보급 문화재	정부
④	능동문의 목적어	능동문의 주어
⑤	회수된 사실	회수한 주체

5.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감추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②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③ 피동 표현을 만들 때 피동 표현을 두 번 겹쳐 사용하면 더욱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④ 뉴스 등에서 보도할 때 판단의 주체를 감추어 보도 내용이 개인의 생각이 아닌 일반적 의견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⑤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는 것이 있다.

6. <조건>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의 상황에서 ㉠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 조개가 새에게 (㉠).

<조건>

㉠에는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 들어가야 함.

① 쪼았다 ② 물었다 ③ 찌르다
④ 쪼였다 ⑤ 잡았다

7. <보기>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든 피동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위험에 처한 강아지들이 구조대에 의해 모두 구출되었다.

① 토끼가 사냥개에게 쫓겼다.
② 닫혀 있던 문이 바람에 닫혔다.
③ 오래된 유물이 땅속에서 발견되었다.
④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렸다.
⑤ 낡은 옷이 뾰족한 못에 걸려 찢어졌다.

무단 배포 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8. 다음은 <보기>의 상황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다. 가장 옳은 내용을 말한 사람은?

<보기>

기상 캐스터: 이번 주말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영: <보기>의 기상 캐스터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행위의 주체를 강조하고 있어.

나영: 아니야. <보기>의 기상 캐스터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감추어 동작이나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일 거야.

다영: 글쎄, <보기>에서는 판단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그건 아니지 않을까?

라영: 내가 보기에 <보기>의 기상 캐스터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피동 표현은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아/어지다'를 붙여서 만든 거야.

마영: 나는 <보기>의 기상 캐스터가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판단의 주체를 감추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 같아.

① 가영 ② 나영 ③ 다영
④ 라영 ⑤ 마영

9.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문장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표현이다. 인용 표현에는 인용 부호(큰따옴표)와 조사 '(이)라고'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원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직접 인용 표현과 인용 부호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간접 인용 표현이 있다.

① ㉠ - 어머니께서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렴."이라고 말씀하셨다.
② ㉠ - 민수는 나에게 "이번 방학에 같이 여행 갈래?"라고 물었다.
③ ㉡ - 동생이 하늘을 가리키며 "저기 무지개가 떴어!"라고 소리쳤다.
④ ㉡ - 지수는 나에게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 물었다.
⑤ ㉡ - 일기 예보에서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 했다.

10. <보기>의 인용 표현의 유형과 다른 것은?

<보기>

수진이가 오늘 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① 친구들이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② 아버지가 "비가 오니 우산을 챙겨라."라고 말씀하셨다.
③ 수지는 이번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말했다.
④ 동생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냐고 물었다.
⑤ 수현이는 우리에게 주말에 같이 축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11. <보기> 중 피동 표현이나 인용 표현을 잘못 사용한 사례만을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폭설로 도로가 막혀져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ㄴ.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말했다.

ㄷ. 주문하신 상품이 10시에 도착됩니다.

ㄹ. 선생님께서는 "모두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무단배포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손녀 유진이에요.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 생일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도 할아버지 생신을 맞이하여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은 생신 선물과 편지를 준비했는데 할아버지 마음에 드시면 좋겠어요.

지난 방학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서 무척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할아버지 댁을 떠나기 전날 밤에 저에게 많이 웃어야 행복해진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가끔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면 저절로 마음이 풀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우리 강아지 왔냐?"라고 하시며 반겨 주시던 모습이 늘 그립답니다. 얼른 뵙고 싶어요, 할아버지!

20○○년 4월 26일

손녀 유진 올림

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간접 인용 표현의 인용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② 피동 표현을 두 번 겹쳐 쓴 이중 피동이 사용되었다.

③ 접미사 '-되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 활용되었다.

④ 인용 부호 큰따옴표를 사용해 생동감과 현장감을 전달하고 있다.

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긴 직접 인용 표현이 활용되었다.

무단 배포 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에밀리는 '모기가 물렸어'라며 잘못된 피동 표현을 사용해 엉뚱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기가 물었어' 또는 '모기한테 물렸어'로 고쳐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① 보미는 '왜 그래, 에밀리?'라며 에밀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보미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에밀리는 '모기가 물렸어'라며 자신이 모기에게 물린 일을 모기가 다른 대상에게 물린 것처럼 잘못된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는 에밀리와 보미가 공원을 산책하다 잠시 쉬는 도중에 한 대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②

㉠의 '탐험가'는 ㉡에서 '탐험가에게'와 같이 부사어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과 ㉡은 숲속에서 고대 유적이 탐험가에게 발견되었다는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의 '고대 유적'은 ㉡에서 주어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접미다 '-되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인 '발견되다'가 활용된 문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낸 표현은 피동 표현이다. ㉠은 능동 표현이 사용된 능동문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정답 ③

피동 표현은 문장의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는 방법, '-아/어지다'를 붙이는 방법, 일부 명사에 접미사 '-되다'를 붙이는 방법 등을 사용해 만들 수 있다. 해당 문장은 문장의 주어인 '사람들'이 동작이나 행위를 자기 힘으로 하는 능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잡혔다'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잡다'에 피동을 만드는 접미사 '-히-'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② '깨졌다'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깨다'에 '-아/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④ '도입되었다'는 '도입'에 피동을 만드는 접미사 '-되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⑤ '결정되었다'는 '결정'에 피동을 만드는 접미사 '-되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4. 정답 ①

(가)는 행위의 주체인 '정부'가 주어로 나타난 능동 표현이고, (나)는 행위를 당한 대상인 '국보급 문화재'가 주어로 나타난 피동 표현이다. 화자가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의도는 행위의 주체(정부)보다는 행위를 당한 대상(국보급 문화재)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기 2>의 ⓐ에는 '행위의 주체', ⓑ에는 '행위의 대상'이 들어갈 수 있다.

②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문화재)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에 '행위의 주체'가 들어가면 대상이 아니라 주체를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가 되어 피동 표현의 사용 목적과 정반대되는 설명이 된다.

③ '국보급 문화재'는 행위의 대상이고, '정부'는 행위의 주체이다. ⓐ에 '국보급 문화제', ⓑ에'정부'를 넣으면 국보급 문화재(대상)가 아니라 정부(주체)를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가 되므로, 주체를 감추거나 덜 드러내는 피동 표현의 효과와 맞지 않는다.

④ '능동문의 목적어'는 '국보급 문화재'(행위의 대상)이고, '능동문의 주어'는 '정부'(행위의 주체)이다. 피동문은 능동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내세우고 있는데 ⓐ에 '능동문의 목적어', ⓑ에 '능동문의 주어'를 넣으면 능동문의 목적어(대상)가 아니라 능동문의 주어(주체)를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가 되어 틀린 설명이 된다.

⑤ ⓐ에 '회수된 사실', ⓑ에 '회수한 주체'를 넣으면 회수된 사실이 아니라 회수한 주체(정부)를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가 되어 피동 표현의 효과를 반대로 설명하게 된다.

5. 정답 ③

무단 배포 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피동 표현을 두 번 겹쳐 사용하는 것은 '이중 피동'으로, 잘못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더욱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④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감추어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는 것, 뉴스나 신문 기사 등에서 보도할 때 판단의 주체를 감추어 보도 내용이 개인의 생각이 아닌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모두 피동 표현의 사용 효과로 적절하다.
⑤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6. 정답 ④
<보기>의 상황은 새가 조개를 쪼는 상황이다. 그리고 <조건>에 따르면 ㉠에 들어갈 말은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는 것은 '쪼-+-이-+-었-+-다'로 분석되는 '쪼였다'이다.
①, ②, ③, ⑤ 나머지는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③
<보기>의 '구출되었다'는 명사 '구출'에 '-되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발견되었다' 또한 '발견'에 '-되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① '쫓겼다'는 동사 '쫓다'의 '쫓-'에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이다.
② '닫혔다'는 동사 '닫다'의 '닫-'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다.
④ '들렸다'는 동사 '듣다'의 어간 '듣-'에 접미사 '-리-'가 결합한 것이다.
⑤ '찢어졌다'는 동사 '찢다'의 어간 '찢-'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8. 정답 ⑤
<보기>의 기상 캐스터는 '예상됩니다'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뉴스나 신문 기사와 같은 보도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판단의 주체를 감추어 보도 내용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느낌을 주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① <보기>의 기상 캐스터는 '예상됩니다'와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의 기상 캐스터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기>에 나타난 상황을 참고했을 때 동작이나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보기>에서는 판단 주체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에 사용된 피동 표현은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③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글을 끌어다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간접 인용을 사용할 때에는 인용 부호 없이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② 인용 부호(큰따옴표)와 조사 '(이)라고'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민수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으므로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④, ⑤ 조사 '고'를 사용하였고, 인용하는 내용의 종결 어미를 바꾸어서 지수와 일기 예보의 말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고 있으므로 ㉡(간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10. 정답 ②
<보기>의 '수진이가 오늘 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옮긴 말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나타낸 간접 인용 표현이다. '아버지가 "비가 오니 우산을 챙겨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직접 인용 표현이므로 <보기>와 다른 유형의 인용 표현이다.
①, ③, ④, ⑤ 모두 간접 인용 표현에 해당하므로 <보기>와 같은 유형의 인용 표현이다.

11. 정답 ⑤
ㄱ. '막혀져'는 '막히다'라는 피동 표현에 '-어지다'가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ㄷ. '도착하다'는 '목적한 곳에 다다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능동 표현이 자연스러운 동사에 피동 표현을 만드는 접미사 '-되다'를 붙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무단배포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ㄹ. 인용 부호(큰따옴표)가 사용된 직접 인용 표현에서는 인용 조사 '(이)라고'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잘못되었다.
ㄴ. 간접 인용은 인용 부호 없이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하므로 적절하다.

12. 정답 ①
Ⓐ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간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간접 인용 표현은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하므로 인용 조사가 잘못되었다.
② Ⓐ에서 이중 피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에서 접미사 '-되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에서 큰따옴표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간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무단배포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